

덕겸(德謙)과 관오(觀奧)의 행적과 고려전기 승정(僧政)의 일면*

김 보 광(金甫桃)**

- | | |
|-------------------------|---------------------------|
| I. 들어가며 | IV. 주지 경력으로 보는 승정(僧政)의 일단 |
| II. 덕겸과 관오의 생애와 주요 이력 | V. 나오며 |
| III. 이자겸의 난과 덕겸, 관오의 행적 | |

I. 머리말

천흥사는 문헌 기록이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 않아 창건이나 폐사와 관련한 명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천흥사지 동종(銅鐘)에서 “성거산천흥사 종명 통화이십팔년 무술이월일”이라는 명문을 찾을 수 있어서 천흥사가 늦어도 1010년(현종 원년)에는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절의 창건 시기를 놓고, 신라 말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설, 고려 초 태조 왕건이 세웠다는 설 등으로 나뉘지만, 대체로 태조 왕건 당대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생각된다.¹⁾ 창건 시기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 이 글은 2024년 12월 20일(금)에 한국중세사학회가 천안시, 충남역사문화원과 함께 주최한 학술대회 「고려 태조 왕건의 사찰, 천흥사지」에서 발표한 후 수정, 보완한 것임.

**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부교수.

1) 김갑동, 「나말러초 天安府의 성립과 그 동향」 『韓國史研究』 107, 2002; 김명진, 「고려 태조대 천안지역의 사상적 동향과 사찰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48, 2017; 김명진, 「고려시대 천안지역의 왕실불교」 『국학연구』 34, 2017; 문철영,

고려 초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며, 더구나 태조 왕건과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천흥사는 여러 차례 대소 규모의 발굴이 진행되었다. 공식발굴보고서는 2건이 제출되었으며,²⁾ 그 외 시굴조사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사역의 규모 등 천흥사의 윤곽을 대략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다.

한편으로 덕점(德謙)과 관오(觀奧)라는 두 승려의 묘지명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두 승려는 12세기 전반이라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고, 천흥사 주지라는 공통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두 승려의 이력을 중심으로 하여 고려시대 불교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³⁾

먼저 두 승려의 주요 이력을 살펴서 두 승려가 주로 예종, 인종대에 집중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명망 있는 가문 배경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 인종대 이자겸의 난을 전후하여 이자겸, 인종과 이들 승려 사이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시기의 관료층의 혈연 관계망과 정치사회적 현상이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두 승려의 경력이 천흥사와 법천사를 매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승정의 측면에서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승려가 주지를 지낸 사찰의 위치가

「고려시대 천안지역 사찰의 건립과 성격」 『충청학과 충청문화』 12, 2011 ; 조한필, 「성거산 천흥사와 고려 태조·현종」 『郷土研究』 18, 2010.

- 2) (재)충청문화유산연구원, 『天安 天興寺址 - 1차 발굴조사(추가 시굴조사) 보고서 -』, 천안시, 2021 ; (재)고은문화유산연구원, 『천안 천흥사지』, 2023.
- 3) 두 승려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다만 두 승려의 묘지명이 고려전기 법상종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에, 관련 연구에서 많은 언급이 있었다. 본문에서 자주 인용하겠지만 두 승려를 언급한 대표적인 몇몇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남윤, 「고려중기 불교와 法相宗」 『韓國史論』 28, 서울대 국사학과, 1992 ; 남동신, 「고려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불교연구』 30, 2009 ; 박용진, 「고려시대 국가의 사원 조성과 성격 -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80,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22 ; 박윤진, 「高麗時代 승려의 血族間 師承과 그 意味」 『韓國史研究』 142, 2008 ; 崔炳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沽昐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역도, 역원 체계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고려시대 역도, 역원 운영에 불교 사원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살필 것이다.

결국 불교 사원이 고려의 정치적 지배구조와 관련을 맺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두 승려의 경력과 활동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핍으로써 두 승려 개인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불교와 정치, 지배체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II. 덕겸과 관오의 생애와 주요 이력

덕겸과 관오, 두 승려에 대해서는 『고려사』 등의 사서에 전해지는 기록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들의 묘지명(墓誌銘)이 전해지고 있어서⁴⁾ 그 전반적인 생애를 살펴 보기에는 충분하다. 더구나 이들 두 묘지명은 「현화사비(玄化寺碑)」를 비롯하여 삼천사 대지국사비(三川寺 大智國師碑), 칠장사 혜소국사비(七長寺 慧炤國師碑), 법천사 지광국사비(法泉寺 智光國師碑), 금산사 혜덕왕사비(金山寺 慧德王師碑) 등과 함께 11세기에서 12세기에 걸친 법상종의 양상을 드러내는 핵심 자료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⁵⁾

먼저 덕겸을 보자. 그의 묘지명 기록이 길어 분량상 인용을 하지 않고, 편의상 주요 내용을 다음의 ‘〈표 1〉 덕겸의 생애와 주요 활동’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의 묘지명은 보문각교감 문림랑 상식봉어동정(寶文閣校勘 文林郎 尙食奉御同正) 황문통(黃文通)이 지었다. 그는 덕겸의 조카 사위인 문림랑 위위주부동정(文林郎 衛尉注簿同正) 황의천(黃毅天)의 형이다.

4) 「덕겸묘지명」과 「관오묘지명」을 비롯해 이 글에서 인용하는 묘지명은, 다른 인용 표기를 하지 않는 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고려시대사료DB의 원문과 번역을 이용하였다.

5) 남동신, 「고려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불교연구』 30, 2009, 155~157쪽.

황의천이 자신의 형에게 처삼촌이 되는 덕겸의 묘지명 찬술을 부탁하여서 글을 지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황문통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즈음 여러 묘지명을 지었는데, 윤포(尹誦), 승려 의광(義光), 황보양(皇甫讓)의 처 김씨 등의 묘지명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그의 관력을 소략하나마 살필 수 있다. 곧 그가 지은 묘지명에 남긴 관직을 모아보면 1149년 보문각교감(寶文閣校勘; 황보양 처 김씨 묘지명), 1150년 보문각교감 문림랑 상식봉어동정(寶文閣校勘 文林郎 尙食奉御同正; 덕겸묘지명), 1154년 보문각교감 문림랑 상식봉어동정(윤포묘지명), 1158년 문림랑 금오위녹사참군사(文林郎 金吾衛錄事叅軍事; 의광묘지명)를 지낸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더해 그의 본향이 남평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⁶⁾ 그가 지은 묘지명 중에는 승려 의광의 것도 있다. 의광은 개경의 승교사 주지를 지내다가 현화사에서 입적하였다.⁷⁾ 승교사나 현화사는 모두 법상종과 관련된 사원이라는 점에서⁸⁾ 의광은 이 글에서 다루는 덕겸이나 관오와 마찬가지로 법상종 승려라 하겠다. 비슷한 시기에 법상종 승려로 활동한 덕겸과 의광이라는 두 승려의 묘지명을 황문통이 지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라 하겠다.

자신의 묘지명에 따르면 덕겸은 1150년(의종 4) 2월 12일에 68세로 사망하였으므로, 1083년(문종 37)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살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13살이 되는 1095년(현종 1)에 출가하였다. 1096년(현종 2)에 불일사(佛日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고, 1103년(숙종 8)에 왕륜사(王輪寺)에서 열린 승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그리고 장엄사(長嚴寺)의 주지(住持)를 지냈는데,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예종대로 추정된다. 다만 1126년에 삼중대사(三重大師)가 되므로 그 이전에는

6) 「皇甫讓妻金氏墓誌銘」.

7) 金龍善 편, 「(僧)金義光墓誌銘」 『(第五版)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출판부, 2012.

8) 한기문, 「住持制度와 그 運用」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170쪽.

승계가 중대사(重大師)였을 것이다. 1126년(인종 4) 5월에 이자겸 세력이 숙청된 이후에 삼중대사로 승계가 오르고, 천흥사(天興寺)의 주지(住持)가 되었다. 1137년(인종 15)에는 원주에 위치한 법천사(法泉寺)의 주지가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혹은 그 전에 승계가 승통(僧統)으로 올랐을 것이다.⁹⁾ 1146년(의종 즉)에는 현화사(玄化寺) 주지가 되었고, 1150년 1월에 병을 얻어 2월 세상을 떠났다.

〈표 1〉 덕겸의 생애와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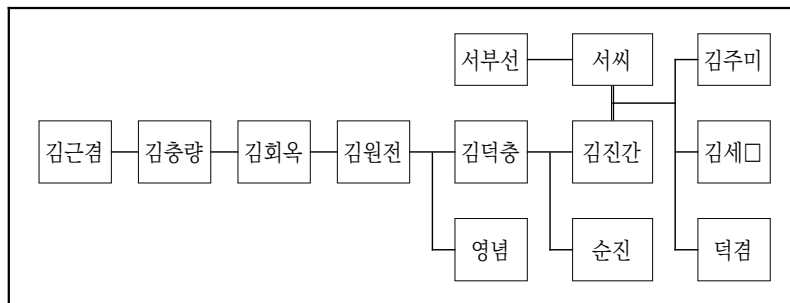
시기(왕대)	연령	승랍	주요 사항
1083(문종 37)			출생
1089(선종 6)	7세		모친상
1095(현종 1)	13세		출가
1096(현종 2)	14세	1세	불일사에서 구족계(具足戒)
1103(숙종 8)	21세	8세	왕륜사에서 승과 급제
1115~7(예종 초)	35세	22세	장엄사 주지
1126(인종 4)	44세	31세	삼각산 향림사로 이동
1126(인종 4) / 5			삼중대사, 천흥사 주지
1130년대?			수좌
1137(인종 15)	55세	42세	승통, 법천사 주지 『금광명경소(金光明經疏)』 찬술
1146(의종 즉)	64세	51세	현화사 주지
1150(의종 4) / 1	68세	55세	병을 얻음
1150(의종 4) / 2			12일, 사망
1150(의종 4) / 2			25일, 다비
1150(의종 4) / 5			27일, 장사

다음으로 그의 혈연 관계를 보면, 그는 청주(淸州) 상당군(上黨郡) 출신으로, 속성은 김씨이다. 그의 가계는 6세조 수사도 삼중대광(守司徒 三重大匡) 김근겸(金勤謙)을 시작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 김충량(金忠良), 시

9) 사원 주지의格과 승계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법천사는 삼중대사 정도의 승려가 주지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승계가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덕겸은 법천사 주지가 되기 전 혹은 동시에 삼중대사라는 승계를 받았을 것이다.

랑(侍郎) 김희옥(金懷玉), 대부소경(大府小卿) 김원전(金元戡), 전중내급사동정(殿中內給事同正) 김덕충(金德冲), □□봉어동정(□□奉御同正) 김진간(金珍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묘지명에 기록되어 있다. 김진간은 서씨와 혼인하여 검교소부감(檢校少府監) 김주미(金周美), 김세□(金世□)와 덕겸의 3형제를 낳았다고 한다.

〈그림 1〉 덕겸의 가계



특히 덕겸의 혈연 배경이 되는 상당김씨 일족은 청주 지역의 상당한 유력 가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962년(광종 13)에 세운 용두사지(龍頭寺址) 철당간(鐵幢竿)에 보면, “근래에 당대등(堂大等) 김예종(金芮宗)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일족은) 고을의 큰 가문이요 향리의 고귀한 집안이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온다. 또한 당간을 세우는 과정에 참여한 단월겸 영(檀越兼令)인 정조(正朝) 김희일(金希一), 대등(大等) 김수□(金守□), 김석희(金釋希), 김관겸(金寬謙)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¹⁰⁾ 이 기문에 언급된 김씨들이 바로 상당김씨 김예종과 같은 유력 호족으로 여겨진다. 처음 당간 건립을 제기한 김예종과 단월 김희일은 형제이며, 당대등으로 표기된 김희일을 중심으로 청주 지역의 중심 세력이었다. 다만 그의 관계(官

10) 「龍頭寺址鐵幢竿」. 이 자료에 대해서는 채웅석, 「龍頭寺址鐵幢竿」 『韓國金石文集成 35 : 高麗 19 金文 및 기타(解說編)』, 한국국학진흥원, 2012이 크게 참고된다.

階)가 정조인데, 이는 고려 초의 16등의 관계 중에서는 12등에 위치한다.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비중이 그리 큰 세력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¹¹⁾ 광종대에 들어와 호족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분위기에서 지역 사회의 지배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들 김씨 세력이 용두사 철당간의 건립을 주도하였다고 이해된다.¹²⁾ 다만 철당간에 등장하는 김예종, 김희일 계열과 덕겸의 가계가 어떻게 엮이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어찌되었든 덕겸이 청주 일대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닌 호족적 혈연 배경을 지니고 있음은 인정할 수 있겠다.

덕겸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그의 출가와 관련한 불교, 특히 법상종과의 인연이다. 바로 위에서 그의 혈연 배경이 청주 지역의 유력한 호족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출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묘지명에 숙부가 순진이라고 하는 승려였으며, 영념이라는 승려가 순진의 숙부라고 하는 언급도 있다.

가-1)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스님을 현화사의 삼중대사(三重大師) 순진(順眞)에게 맡기고자 하였다. 밤에 순진공이 꿈을 꾸었는데, 돌아가신 승통(僧統) 영념(英念)이 와서 “내가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다음날 스님이 순진공에게 이르렀으니, (순진공은) 곧 선생의 숙부였으며, 영념공 또한 순진공의 숙부였다. 영념공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다른 승려가 되어 이 절에 임하여 조도(祖道)를 크게 빛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순진공이 이로써 스님의 도량을 높게 평가했으며[器之], 스님도 또한 영념공의 후신(後身)임을 자부하였다.¹³⁾

11) 청주 지역 호족에 대한 치밀한 연구는 일찍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몇 편의 성과를 제시한다.

김낙진, 「高麗 光宗의 개혁정치와 淸州 龍頭寺 鐵幢竿의 건립」 『사학연구』 121, 2016; 김수태, 「新羅末·高麗前期 淸州金氏와 法相宗」 『中原文化論叢』 1, 1997; 金周成, 「高麗初 淸州地方의 豪族」 『韓國史研究』 61·62, 1988; 李惠善, 「〈龍頭寺鐵幢記〉에 보이는 高麗初 淸州豪族」 『湖西文化研究』 14, 1996.

12) 김낙진, 앞의 글, 2016, 153~154쪽.

이것을 보면 덕겸이 부친이 삼중대사(三重大師) 순진(順眞)에게 막내 아들을 출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덕겸의 숙부, 부친에게는 아우가 되는 이였다. 그리고 마침 순진의 역시 자신의 숙부가 되는 승려인 승통(僧統) 영념(英念)의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영념과 순진, 덕겸은 숙부 - 조카의 혈연 관계가 3대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 상당김씨 가문으로 보면 삼중대사, 승통이라고 하는 고위 승려를 역시나 3대 연속해서 배출한 셈이 된다. 게다가 덕겸이 법상종의 승려였으므로, 일종의 사제 관계로 엮인 이들 모두 법상종의 승려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여기에 더해서 덕겸은 법상종에서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촉망받는 차세대 승려로 여겨졌다.

가-2) 예종 때, □사(□師) 덕연(德淵)이 일찍이 궁궐의 명경전(明慶殿)에 있었다. 임금이 “국사(國師)를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국사가 스님이라고 대답하였다. 스님이 처음 장엄사(長嚴寺)의 주지가 되자 국사에게 나아가 사양하였다. 국사가 전문(殿門) 바깥에서 전별의 자리[祖席]를 베풀어 그를 총애하였다.¹⁵⁾

이 글은 예종이 국사인 덕연에게 그의 후계를 묻자 덕겸을 지목하여 추천하였다는 내용이다. 추천받은 덕겸은 장암사의 주지로 있다가 국사 덕연을 만난 기회에 자신이 추천받은 것에 대해 사양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국사가 덕겸과 헤어지면서 전별의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였을 정도로 총애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예종과 덕연 사이의 대화가 그저 예종 때에 벌어진 일이라고만 나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117년의 어느 때로 생각된다. 왜냐하

13) 「德謙墓誌銘」.

14) 박윤진, 「高麗時代 승려의 血族間 師承과 그 意味」 『韓國史研究』 142, 2008, 73쪽..

15) 「德謙墓誌銘」.

면 국사라고 지칭된 덕연은 1117년(예종 12)에 왕사(王師)로 책봉받고, 1122년(인종 즉위년)에 국사(國師)로 책봉받은 덕연(德緣)과¹⁶⁾ 동일인으로 보인다. 특히 예종이 명경전에서 덕연을 왕사로 삼았다고 적시가 되어 있으므로, 묘지명에서 언급하는 명경전은 왕사로의 책봉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덕연은 1117년에 왕사로 책봉받은 궁궐의 명경전에서 국왕과 후계를 놓고 대화를 한 것이 된다. 그리고 덕점은 그 이후에 덕연과 화동하였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덕점은 1103년(숙종 8)에 승과에 합격한 이후 예종 초에 장암사 주지가 되어 있었으므로(〈표 1〉 참고), 1117년 당시에 덕점은 35세, 승랍으로는 22세로 장암사 주지로 머물던 시점이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주지직이었다, 연령이나 경력으로 보나 덕점은 소장층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이런 덕점이 당대 최고의 승려라 할 왕사로부터 장차 미래의 국사가 될 만한 재목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더구나 이제 막 책봉받은 왕사가 국왕에게 미래의 국사가 될 만한 이로 추천하였다는 것은, 덕연 개인의 평가를 넘어 당시 교계의 인식이나 인정을 반영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덕점은 『금광명경소(金光明經疏)』를 찬술하였다고 묘지명에 전해진다. 이것은 법상종 승려의 학술적 저술로는 서명이라도 전하는 유일한 예이다.¹⁷⁾ 아마도 법상종에서 『금광명경』이 사천왕(四天王)에 의한 국가 수호와 현세 이익을 말하고 있어서 일찍부터 호국경전으로 널리 읽혀지기도 하였지만 여기에 더해 자비행의 근본 경전으로 중시되었기 때문에,¹⁸⁾ 이러한 저술이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찬술은 덕점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왕명으로 편찬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법상종의 근본 경전을 정리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인종은 법천사의 주지로 있던 덕점에게 이의 찬술을 명령하였고, 덕점은 모두

16) 『高麗史』 권14, 世家 14 睿宗 12년(1117) 1월 임자(23); 『高麗史』 권15, 世家 15 仁宗 즉위년(1122) 6월 기해(12).

17) 남동신, 앞의 글, 2009, 155쪽.

18) 남동신, 앞의 글, 2009, 169~171쪽.

3권의 분량으로 그 요체를 뽑아 지었다고 한다. 이로 보아 그가 적어도 『금광명경』을 해석함에 국가적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으로 관오의 묘지명을 토대로, 그의 혈연 배경과 주요 이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역시나 분량상 묘지명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고 간략히 <표 2>로 정리하였다.¹⁹⁾ 그는 수주최씨로, 위주광국공신 수태사 내사령 정숙공(衛主匡國功臣 守大師 內史令 貞肅公) 최사위(崔士威)의 현손(玄孫)이고 수사공 좌복야 참지정사 화순공(守司空 左僕射 參知政事 和順公) 최계방(崔繼芳)의 차남이다. 12세 때에 숙부인 현화사 승통 상지(尙之)를 스승으로 하여 머리를 깎고, 1108년(예종 3)에는 계을을 받았다. 1117년(예종 12)에는 봉은사(奉恩寺)에서 열린 승과에 합격하여 승계 대덕(大德)을 받았다. 이후 대사, 중대사로 차례로 승계가 올랐으며, 1122년(인종 즉위년)에는 인종의 즉위를 축하하는 법석(法席)에 나아갔다. 그리고 1131년(인종 9)에는 월악사(月岳寺)의 주지가 되었고, 1137년(인종 15)에는 천흥사(天興寺)의 주지로 옮겼다. 이어서 1145년(인종 23)에 수좌가 되고, 다음해에는 법천사 주지로 옮겼다. 1154년(의종 8)에는 수리사 주지가 되었고, 1158년(의종 12)에 세상을 떠났다.

<표 2> 관오의 생애와 주요 활동

시기(왕대)	연령	승랍	주요 사항
1096(숙종 1)			출생
1107(예종 2)	12세	1세	현화사 승통 상지(尙之)에게 출가 승통 찬영(靈榮)에게 전법(傳法)
1108(예종 3)	13세	2세	수계(受戒)
1113(예종 8)	18세	7세	승교사에서 성복선(成福選) 합격
1117(예종 12)	22세	11세	봉은사에서 승과 급제, 대덕
1122(인종 즉) / 5	27세	16세	대사
1122(인종 즉) / 여름			인종 즉위 기념 하강(夏講)

19) 「觀輿墓誌銘」. 한편 觀輿 묘지명의 지은이는 결락으로 알 수 없고 ‘兼儒者’이란 표현에서 유학을 익힌 아무개 정도로 짐작할 수 있다.

1123(인종 1)	28세	17세	증대사
1125(인종 3)	30세	19세	외제석원에서 국왕에게 강론 자첩가사(紫貼袈裟) 하사
1131(인종 9)	36세	25세	월악사 주지
1137(인종 15)	42세	31세	삼중대사 → 천홍사 주지
1138(인종 16)	43세	32세	마납가사(摩訶袈裟) 하사
1142(인종 20)	47세	36세	청첩가사(靑貼袈裟) 등 하사
1145(인종 23)	50세	39세	수좌 +마납엄척(摩訶掩脊) 하사
1146(의종 즉)	51세	40세	법천사 주지
1154(의종 8)	59세	48세	수리사 주지
1155(의종 9) / 겨울	60세	49세	오산원에서 시여장(施與場) 크게 엮
1158(의종 12) / 5	63세	52세	21일, 사망
1158(의종 12) / 8			장사

관오의 생애 활동과 함께 혈연, 가문과 관련하여 주목할 이로 그의 아버지인 최계방과 형인 최함을 들 수 있다. 먼저 다음 <그림 2>로 나타내었듯이 수주최씨는 최서천을 시조로 하고 최사위를 거치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그가 현종대에 수상이 되는 등 정치적으로 크게 현달하였으며, 그의 아들과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재상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였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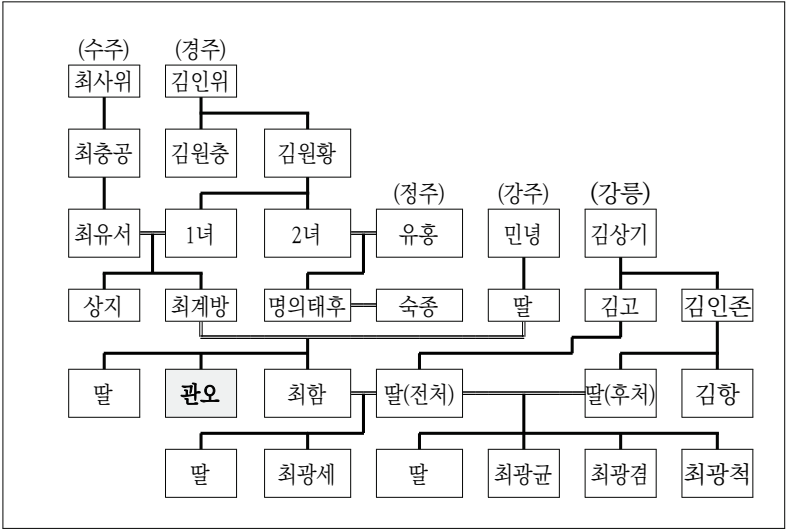
관오의 부친인 최계방은 순종의 동궁 시절 부료(府僚)였다가 그 공으로 순종의 즉위 후에 ‘내신(內臣)’으로 발탁되어 이후 선종과 현종 때에도 근신로 있었다. 숙종이 즉위한 후에는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의 감독을 맡았다. 그리고 1109(예종 4)에 어사대부(御史大夫), 1113년 7월에 수사공 병부상서 참지정사(守司空 兵部尙書 叅知政事)를 거쳐²¹⁾ 12월에 좌복야 판삼사사 주국(左僕射 判三司事 柱國)으로 치사하였다.²²⁾ 특히나 최계방의 이모는 숙종의 비인 명의태후 류씨의 모친으로, 명의태후와 이종사촌

20) 수주최씨 가문은 인주이씨와 함께 고려전기 최고의 가문으로 자리하는데, 그 정치적 성장과 여러 가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크게 참고된다. 朴龍雲, 『高麗時代 水州崔氏家門 分析』 『史叢』 26, 1982; 『고려사회와 門閥貴族家門』, 경인문화사, 2003.

21) 『高麗史』 13, 世家 13 睿宗 8년(1113) 가을 7월 기묘삭(1).

22) 『高麗史』 13, 世家 13 睿宗 8년(1113) 12월 병진.

〈그림 2〉 관오의 가계



이다. 최함은 최계방의 큰아들로 관오의 형이 된다. 12살에 음서로 양운승 동정을 받았지만, 계속 공부하여 21살에 예종이 주관한 친시에 을과 5등으로 급제하여 사경원판관이 되었다.²³⁾ 이후 내시, 직한림원 등을 거치며 문장력으로 인정받았다. 특히나 예종이 태자이던 인종에게 “최함이 고명을 맡을만 하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실제로 1125년(인종 3)에 우정언 지제고(右正言 知制誥)가 되었고, 1126년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을 때 국새(國璽)를 가지고 왕의 곁에서 시종한 바 있다. 1141년(인종 18)에는 차예부상서 서경유수지사(借禮部尙書 西京留守知事)가 되었으며, 1148년(의종 2)에는 국자감대사성(國子監大司成)이 되었다. 이후 병부상서(兵部尙書), 정당문학(政堂文學) 등을 거쳐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 판호형부사(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判戶刑部事)에까지 이르렀다. 1160년(의종 14)

23) 최함이 21살이 되던 해는 1114년(예종 9)으로, 이해 4월 과거에서 예종이 覆試를 시행하여 乙科 白晳 등 5명, 丙科 11명, 同進士 22명, 明經業 3명에게 及第를 내려준 바 있다. (『高麗史』 권73, 志 27 選舉 1 科目 1 科場場)

에 67세로 사망하였다. 그는 문장에 뛰어난 당시 종장(宗匠)이라 불렸으며, 국가의 법전과 전고(典故)에 밝았다고 한다.²⁴⁾ 최계방과 최함의 존재는 관오의 활동 당시에 가문의 명망을 보여주는 단적인 인물들이다.

최함과 관오 형제의 이력 중 재미있는 부분이 1137년(인종 15)에 일어난다. 관오는 1137년에 삼중대사로 승계가 오르고 천흥사의 주지가 되었다. 이때 형인 최함도 추동번(秋冬番)으로 양광충청로안찰사(楊廣忠淸路按察使)에 임명되었다.²⁵⁾ 천흥사가 위치한 천안은 양광충청도의 관할 내에 위치한다. 따라서 두 형제는 1137년 가을 겨울 동안 같은 행정 구역에 머무른 셈이다.

덕점과 관오, 이 두 승려의 일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고려전기 지배층과 불교 사이의 접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덕충-김진간-덕점으로 이어지는 가계는 세대마다 법상종으로 승려를 배출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문 출신 승려에게 출가시켜 혈연 관계에 더해 사승 관계로도 맺었다. 곧 덕점은 숙부인 순지에게 출가하였으며, 순지 역시도 자신의 숙부인 영념에게 출가하였다. 그리고 덕점은 순지의 숙부인 영념의 화신임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모두 승계가 삼중대사, 승통까지 올라 고위 승려가 되었다. 고려 초부터 지배층들이 불교로 출가하고, 또 사승 관계를 형성하면서 불교계에서의 인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모습을 덕점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또 관오의 출가도 덕점과 마찬가지로 숙부인 승통 상지(尙之)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현화사와의 반복된 인연도 주목할 만하다. 관오의 현조(玄祖)가 되는 최사위는 현화사의 창건 당시에 별감사(別監使)로 공사의 책임자였다.²⁶⁾ 관오의 출가 당시 상지는 현화사에 머물고 있었

24) 「崔誠墓誌銘」.

25) 「崔誠墓誌銘」.

26) 「玄化寺碑」.

다. 이처럼 수주최씨와 법상종, 그리고 현화사와의 세대별로 인연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점 역시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²⁷⁾

덕겸이 덕연으로부터 장래의 왕사가 될 만한 인재로 평가받은 것처럼 관오 역시도 불교계에서 어느 정도 명성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1) 무릇 (스님이) 주지가 되어 거처한 곳은 모두 유명한 사찰[名藍]이며, 그곳의 승려들은 선사를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였고, 배우는 자들은 스님을 흠모하고 따랐다. (스님은) 한 종파[一宗]의 주춧돌이 되어서 □□□ 세 조정[三朝]이 대우함이 이와 같았다.²⁸⁾

나-2) 지광(智光)의 문하에 혜덕왕사(惠德王師)가 있구나.
법맥이 대대로 이어지고, 결가지[孫枝]도 무성하였네.
스님이 차례의 뒤에 있으니, 당대에 뛰어나셨네.²⁹⁾

나-1)은 관오의 묘지 기록 중 스님의 행적을 평가한 부분이고, 2)는 그 명(銘)의 일부이다. 1)을 보면, 관오가 여러 승려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짐작된다. 2)에서는 관오가 지광국사 해린, 혜덕왕사 소현의 법맥을 잇고 있으며, 그 후배되는 여러 승려 중 가장 뛰어났다고 읊고 있다. 물론 묘지명이 망인(亡人)에 대한 존중과 추모의 뜻을 담고 있기에, 그 기록이 사실에 바탕을 두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과장이나 미화가 되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나-1)에 보이는 평가의 상당 부분이 과장이라 하더라도 관오가 지광국사 해린, 혜덕왕사 소현의 계보를 잇는 후학으로, 이른바 법상종의 대표적인 법맥에 위치하고 있음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예종에서 의종에 이르는 3대 동안 조정으로부터 상당한 인정을 받은 이유였을 것이다. 곧 관오가 수주최 씨라는 당대 최고의 가문 출신이라는 혈연 배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법에

27) 崔炳憲, 앞의 글, 1981.

28) 「觀奧墓誌銘」.

29) 「觀奧墓誌銘」.

대한 학식과 행실 등으로 인정받은 바가 크지 않았나 싶다. 이 점에서 관오 또한 당시 법상종 내지 불교계에서 기대받던 인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III. 이자겸의 난과 덕겸, 관오의 행적

덕겸과 관오, 두 승려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상황이 이자겸의 난을 둘러싸고 펼쳐졌다. 이자겸의 난과 관련하여 얽힌 이 상황은 당시 두 승려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위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자겸은 당시 최고의 명문 가문인 전주이씨 출신으로, 예종의 장인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나 예종 사후에 자신의 외손인 인종이 즉위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1122년 4월에 14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인종에게 이자겸은 자신의 셋째, 넷째 딸과 혼인시켜 국왕의 외조부이자 장인이라는 지위를 차지하고는 정권을 독차지 하였다. 그는 1122년 12월에 예종의 동생인 대방공(帶方公) 왕보(王輔)가 한안인, 문공미 등과 불궤(不軌)를 도모했다고 하여 이들을 제거하였으며, 다음해 2월에는 최흥제 등을 숙청하였다. 이후 조선국공(朝鮮國公)으로 책봉받아 승덕부(崇德府)를 개부하고 요속을 배치할 정도가 되었다. 그의 전횡이 심해지자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할 방안을 강구하여 내시 김찬, 안보린 등이 이자겸 제거를 시도하여 1126년(인종 4) 2월에 이자겸의 우익인 척준경의 아들 척순을 죽이는 등 실제 움직임에 나섰다. 이 시도는 척준경이 군대를 동원하고 의장이 현화사의 승려를 거느리고 궁궐로 나아가면서 궁궐은 불에 타고 김찬 등이 살해되어 실패하였다. 결국 인종은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를 이간질 하여 같은 해 5월에 척준경이 이자겸을 사로잡아 귀양 보내면서 이자겸의 집권과 그의 난은 끝이 나게 된다.³⁰⁾

이렇게 인종대 초반에 이자겸과 그 세력이 전횡을 하는 정치적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덕검과 관오도 그 영향에 휩쓸린 바가 있다. 이 분위기 속에서 두 승려는 결론적으로 이자겸 내지 그 세력과 거리를 두고, 정치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였으며, 이자겸의 몰락 후에 주지 임명 등 승려로서의 활동상이 고조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이자겸의 난과 관련한 덕검의 행적을 보자.

다-1) 인종 초에 이르러 외척[國戚] 이씨(이자겸)가 권력을 제멋대로 하였다.

그 아들로써 승려가 된 자가 현화사에 거처하면서, 권세에 의지하여 여러 노사(老師)와 덕이 있는 자를 위협하여 문하의 제자(門弟)로 삼았다. 그러자 권세[炙手]에 아부하는[趨炎] 자들이 날마다 그 문을 가득 채웠다. 스님만이 홀로 화난 기색을 드러내고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스승이 있는 곳이 도(道)가 있는 곳이다. 어찌 통달한 선비들이 세력에 핏박되어 도리어 애송이의 문하(門眷)가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씨의 아들이 선생을 크게 미워하여 해치고자 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때마침 궐 안[大內]에서 병오년(1126, 인종 4)의 화가 일어났는데, 이씨의 아들이 승려 무리를 거느리고 개경으로 가려 하면서 억지로 스님을 데려가고자 하였다. 스님이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 문하 2명과 함께 남쪽으로 삼각산

-
- 30) 이자겸의 집권 및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연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가 있다.

Edward J. Shultz, 「한안인파의 등장과 그 역할」 『歷史學報』 99·100합, 1983; 金塘澤, 「고려 文宗~仁宗朝 仁州李氏의 정치적 역할」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2001; 金秉仁, 「韓安仁勢力과 李資謙勢力의 政治的 對立」 『高麗 睿宗代 政治勢力 研究』, 경인문화사, 2003; 金潤坤, 「고려 귀족사회의 제모순」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4; 金潤坤, 「李資謙의 勢力基盤에 對하여」 『大丘史學』 10, 1976; 『한국 중세의 역사상』, 영남대출판부, 2001; 南仁國, 「고려 인종대 정치지배세력의 구성과 동향」 『歷史教育論集』 15, 1990; 「고려중기 정치세력 연구」, 신서원, 1999; 盧明鎬, 「李資謙一派와 韓安仁一派的 族黨勢力 - 高麗中期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 『韓國史論』 17, 서울대 국사학과, 1987; 황향주, 「이자겸의 집권 배경과 인종초 이자겸 권력의 공식화」 『中央史論』 62, 2024.

향림사(香林寺)로 가서 잠시 의탁하였다.³¹⁾

이 기록은 이자겸의 아들로 현화사에 머물고 있던 승통 의장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두 사람의 갈등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에는 인주이씨, 특히 이자겸이라는 가문의 배경을 등에 업은 의장이 많은 승려들을 자기 세력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을 싫어한 덕겸이 일갈하였다는 일화가 적혀 있다. 이런 덕겸의 행동을 미워한 의장이 여러 차례 해코지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빚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갈등의 강도가 상당한 듯이 묘사되어 있다.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갈등일 수도 있지만, 의장에게 영합하려는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담겼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 그러한 분위기를 가져온 의장의 득세에 기인한 보다 복잡한 정치적 차원의 갈등이라 생각한다.³²⁾

후반부에는 이자겸의 난 당시 의장이 덕겸을 포섭하려는 양상이 나온다. 1126년 2월에 이자겸의 난이 발발하였을 당시에 의장은 현화사의 승려를 정변에 동원하였다. 그 와중에 덕겸을 억지로 합류시켜 개경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러자 덕겸이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는 제자 2명과 함께 남경에 위치한 삼각산 향림사로 피신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덕겸과 갈등을 빚던 의장이 이 기회에 덕겸을 제거하려 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장이 개경, 그것도 궁궐로 승도를 이끌고 달려갔던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반추해 보면, 덕겸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 나오지

31) 「德謙墓誌銘」.

32) 김수태, 앞의 글, 1997, 32~33쪽에서는 태현, 해린 계열의 주류 법상종 세력을 인주이씨가 장악하면서 거기에 소외된 덕겸을 위시한 진표, 정현 계열이 반발하고 여기에 경주김씨처럼 새롭게 대두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반발했다고 한다. 토니노 푸지오니 또한 김부식의 형인 玄湛 역시 법상종 승려로 인주이씨 중심의 법상종에 반발하였다고 한다(『高麗時代 法相宗教團의 推移』,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92~93쪽). 이는 필자와 마찬가지로 덕겸과 의장이 갈등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법상종의 내부 갈등, 문벌귀족가문의 세력 관계가 결합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않았나 이해된다. 그래서 사양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덕겸이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이러한 다-1) 후반부의 상황은 덕겸이 당시 불교계, 특히 법상종에서는 높은 평판이나 명망을 지녀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기에 나왔다고 보인다. 의장은 덕겸을 나란히 내세워서 자신이 현화사를 동원해 급박한 정변에 깊이 개입하는 상황을, 법상종 전체의 의지에 부응한 것으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다-2) 이해 여름 5월에 이씨 무리가 패하였다. 인종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 (스님에게) 삼중대사(三重大師)를 더해주고 (그를) 옮겨서 천흥사(天興寺)의 주지로 삼았다.³³⁾

다-2)는 1126년 5월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후에 인종이 덕겸을 삼중대사로 올리고 천흥사 주지로 옮기게 했다는 기록이다. 승계의 상승과 주지 임명이라는 조치를 이자겸의 난과 연관지어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이번의 조치는 다-1) 후반부에서 의장과 함께 하지 않고 남경으로 자리를 옮긴 덕겸에 대한 포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마도 이자겸의 숙청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의 안정을 꾀하는 과정에서 불교계까지도 분위기 쇄신을 의도한 조치였을 것이다. 다시 한번 덕겸이 이자겸 세력과 반대하는 위치에 서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인종이 그를 ‘가상히 여겼다’라는 언급은, 덕겸의 정치적 위상이나 입장이 국왕과 일치하였음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1126년 이자겸의 난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덕겸이 법상종 내에서 높은 위상을 지녀 정치적으로 입지를 지닌 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지는 그가 이자겸 세력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었으며, 나아가 당시 불교계의 촉망받는 인재였다는 앞서의 언급까지도 확인시켜 준다.

한편으로 관오는 덕겸과 달리 그가 이자겸의 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33) 「德謙墓誌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형인 최함을 통해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다-3) 임인년(1122, 인종 즉위년)과 계묘년(1123, 인종 원년)에 특별한 은혜[赦]로 대사(大師)와 중대사(重大師)를 더하였다. 을사년(1125, 인종 3)에 외제석원(外帝釋院)에서 국왕[御軒欄]과 마주하여 불경의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이때) 자세히 설명한 바가 국왕의 뜻에 알맞았으니 자첩가사(紫貼袈裟) □벌을 하사하였다. 임인년에 특별한 은혜로 (인종의) 즉위를 축하하는 법석(法席)에 나아갔으며, 그 공으로 하강(夏講)을 더하였다.³⁴⁾

다-4) 인종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1124, 인종 2)에 발탁되어 우정언 지제고(右正言 知制誥)에 제수되었다. (인종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1126, 인종 4) 2월에 조선공 이자점의 무리인 척준경(拓俊京) 등이 대궐을 공격하여 대궐 내외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척준경 등이 뿔나무를 쌓고 동화문(東華門)에 불을 놓아서 (대궐이) 잇달아 불에 탔다. 임금께서 이에 두려워 급히 남궁(南宮)으로 갔다. 공이 당시에 중서(中書) □하고 국새(國璽)를 받들고 행재소에 달려가서 시종일관 시위하였다. 일이 평정되자 좌정언(左正言)으로 옮겼다.³⁵⁾

먼저 다-3)은 관오와 인종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묘지명의 부분이다. 관오는 승계가 대사에서 중대사로 1년만에 오르고 있는데, 그 시기가 인종 즉위 직후이다. 이를 놓고 인종의 ‘은혜(赦)’ 때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즉위 기념으로 베푼 대사면의 조치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다.³⁶⁾ 게다가 관오는 인종의 즉위를 기념하는 법회가 열렸을 때에도

34) 「觀奧墓誌銘」.

35) 「崔誠墓誌銘」.

36) 다-2)에서는 肆赦라고 하나 赦免이라는 의미와 통한다. 사면은 죄에 따른 벌의 행형 고정에서 감형이나 면제 등을 의미하지만, 唐代의 赦免은 관인에 대한 구제, 경제적 구제 조치, 윤리 질서의 창달 등에 대한 恩典도 포함한다. 고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김신해, 「고려 예종대 ‘恩賜’ 정책의 유형과 정치적 성격」 『韓國史學報』 58,

참여하였다. 여기에 더해 1125년(인종 3)에는 인종을 직접 마주하여 불경을 강설하였고, 그 말한 바가 국왕의 뜻에 부합하여 자첩가사(紫貼袈裟)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사자(賜紫)라고 하여 국가에 공을 세우거나 존송을 받을 만한 승려에게 자색의 가사를 내려주는 제도가 중국에 있었다. 이것이 고려에도 수용되어 주로 승록사의 승관(僧官)이나 각종 불사에 공을 세운 승려에 수여하는, 승계와는 별개로 하나의 관함처럼 운영되었다.³⁷⁾ 그러므로 관오가 인종으로부터 공을 인정받아 ‘사자’ 칭호를 받아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은 분명하다.

인종은 즉위년인 1122년 5월에 신봉문으로 납시어 사면을 내린 바 있고,³⁸⁾ 원년인 1123년 12월에 사면령을 내리고 산천에 차례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노인 및 독질자(篤疾者), 폐질자(廢疾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차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한 바 있다.³⁹⁾ 다-2)에서 사면과 대사, 중대사라는 승계의 가급(加級)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특혜 범위에 승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관오가 대사, 중대사를 받은 시기는 1122년 5월이나 1123년 12월의 일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자겸을 숙청한 이후인

2015; 박수찬, 「고려시대 은례(恩例) 시행과 의미」 『역사와현실』 124, 2022; 朴永寬, 「高麗 前期의 刑律運用에 대한 研究 - 특히 流刑을 中心으로 -」,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6; 辛虎雄, 「高麗時代의 赦免制度」 『關大論文集: 人文科學·社會科學篇』 21, 1993; 유성국, 「고려시대의 赦免制度」 『연세법학연구』 4, 1997; 윤채운, 「고려전기 사면의례의 구성과 의미」 『韓國史研究』 197, 2022; 윤훈표, 「고려 전기 사면 실시의 특징과 행형 체계의 수립 방향」 『사학연구』 130, 2018; 任大熙, 「恩赦實施를 通하여 본 唐代政治」 『大丘史學』 40, 1990; 佐川昭, 『古代王權と恩赦』, 雄山閣, 1998; 홍기표, 「高麗時期〈天災地變〉관련 詔書 연구」 『인문과학』 39,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8.

37) 박윤진, 「高麗前期 ‘賜紫沙門’의 의미와 역할」 『역사민속학』 49, 2015. 관오가 하사받은 ‘자첩가사’는 붉은색 천을 마로 만든 가사 위에 덧댄 것으로, 당 숙종 때에 비롯한 복식이다.(이순학, 『한국 가사(袈裟)의 유형 분석 및 구성법 연구』, 단국대 전통의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136~138쪽)

38) 『高麗史』 권15, 世家 15 仁宗 즉위년(1122) 5월 戊寅(21).

39) 『高麗史』 권15, 世家 15 仁宗 원년(1123) 12월 壬午(1).

5월 22일에 인종은 ‘창의정난(倡義定難)’을 명분으로 척준경에게 공신했고, 각상도형(閣上圖形) 등의 포상을 연달아 시행한 바 있다.⁴⁰⁾ 당시 조정은 이자겸의 난을 ‘평정’한 시기로 인종 4년(1126)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최함의 포상 시기도 이와 비슷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4)는 관오의 형인 최함에 대한 내용이다(〈그림 2〉 참고). 최함은 우정언 지제고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1126년 2월 이자겸의 난 당시 궁궐이 불에 타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새를 갖고 궁궐 밖으로 피신하여 인종의 곁을 지켰다. 게다가 이자겸의 난이 평정된 후에 좌정언으로 옮겼다고 하니, 이때의 인사조치 또한 이자겸의 난에 대한 공로 포상이며, 그 시기는 이자겸이 제거된 이후 관오가 포상받은 것과 비슷한 시기인 1126년 5월 무렵의⁴¹⁾ 일로 보인다. 이로 보건대, 최함이 인종을 보위하려는 근왕적 성격의 인물이라고 이해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자겸의 세력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관오가 이자겸의 세력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기록은 없지만, 그와 인종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형인 최함의 친(親)국왕적인 행동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관오도 덕겸과 마찬가지로 이자겸 세력과 함께 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라 하겠다.

한편 덕겸이나 의장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놓고 당시 법상종 내부의 분위기나 계열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필 필요가 있다. 법상종은 신라 시대부터 불교계의 한 계열로 존재해 왔으나, 그 교리나 신앙 형태를 두고 크게 두 가지 계열로 구분되곤 한다. 곧 법상종은 신라 중대 이래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유식 교학을 바탕으로 미륵과 아미타 정토를 신앙하는 태현(太賢) 계열과 지방에서 점찰법과 참회를 행하면서 미륵과 지장보살을 신앙하는 진표(眞表) 계열이 있어왔다. 고려로 들어와 이 두 계열이

40) 『高麗史』 권15, 世家 15 인종 4년(1126) 4월 정해(22).

41) 『高麗史』 권15, 世家 15 인종 4년(1126) 5월 을유(20).

모두 법상종으로 불리게 되는데, 국가 주도로 목종대 승교사, 현종대 현화사가 법상종 사원으로 창건되면서 법상종은 크게 융성하게 되었다.⁴²⁾ 여기에 도생승통 탕(鑑)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이자겸 세력이 지원하는 태현계와 한안인 세력이 지원하는 진표계가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어 예종은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에 불교계를 이용하려 하였다. 그러다가 인종대 초반 이자겸의 집권에 따라 의장을 위시한 태현계가 득세하였으나 이자겸의 몰락에 따라 태현계가 쇠퇴하고 진표계가 왕실과 다른 문벌가문의 후원을 이끌어내면서 법상종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⁴³⁾

이와 같은 법상종을 둘러싼 정치적 구도 속에서 정현(鼎賢), 영념으로 이어지는 법맥의 연장선에 덕점이 위치한다. 정현은 최초의 승과 합격자 중 하나로, 법경(法鏡)의 뒤를 이어 현화사의 2대 주지가 되었고, 진표와 인연이 있는 속리산에서 방생식을 설행하기도 하는 등 진표와 연결되고 있다.⁴⁴⁾ 이 때문에 그는 진표계 법상종으로 여겨지는데, 바로 그의 수제자가 영념이다. 그리고 덕점은 영념의 화신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덕점도 크게 보면 진표 계열에 속한다고 하겠다.⁴⁵⁾ 이런 법맥 또는 법상종 내부의 계열 구분은 인종대 초반에 덕점이 의장 등 불교계를 비판하면서 의장과 갈등을 빚은 배경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자겸 몰락 이후 덕점이 부상하게 된 배경으로도 작용하였을 수 있다.

부가적으로 덕점이 이자겸의 난 당시 잠시 피난한 향림사에 대하여도

42) 김남운, 앞의 글, 1992; 김수태, 앞의 글, 1997; 최병현, 앞의 글, 1981; 토니노 푸지오니, 앞의 글, 1996.

43) 채민석, 「고려 예종대 道生僧統 王鑑의 ‘모반’과 법상종 세력의 변동」 『전북사학』 65, 2022,

44) 「七長寺慧紹國師碑」.

45) 김수태, 1997, 앞의 글, 28, 33쪽. 국왕에 의한 정치 세력 구도와 법상종 내부의 교학 계열을 연결시켜 단순화하고, 불교계에 대한 국왕의 통제력을 대단히 강조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인종대에 진표계 입장의 부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는 데에 참고된다.

한 마디 더하고자 한다. 덕겸은 1126년에 이자겸의 난 당시 화를 피해 삼각산 향림사로 문하 2명과 함께 피신하였다.⁴⁶⁾ 이 향림사는 현종대에 있었던 거란(요)의 2, 3차 침입 당시에 현릉에 있던 태조의 관을 임시로 옮긴 재궁이 있던 사찰이다.⁴⁷⁾ 『고려사』에는 부아산에 있던 것으로 나오는데, 부아산은 삼각산과 함께 현재 북한산의 다른 이름이다. 곧 삼각산 향림사와 부아산 향림사는 동일 사찰로 이해된다. 덕겸과 왕실 사이의 접점이 더 있던 셈이다.

IV. 주지 경력으로 보는 승정(僧政)의 일단

덕겸과 관오 두 승려는 법상종으로 출가하여 승과에 응시하고, 일정한 경력을 쌓은 뒤에 주지로 임명받았다. 그 과정에서 천흥사와 법천사의 주지로 임명되기도 하는 등의 이력을 보였다. 두 사람의 이력을 앞 장에서 개별적으로 정리하였지만, 그 중 승정과 관련하여 공통되거나 비슷한 부분을 모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3〉 덕겸과 관오의 주요 이력 비교’이다. 이 표를 토대로 이력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다.

먼저 두 승려의 이력이 유사하다. 승과 급제, 승계의 승진 과정, 주지로 네 곳의 사원에서 주석한 사실 등에서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덕겸은 1103년(숙종 8)에 왕륜사(王輪寺)에서 개최된 승과에 급제하였고, 관오는 1117년(예종 12)에 봉은사(奉恩寺)에서 열린 승과에 합격하였다. 14년의 시차가 있는 셈인데, 관오는 합격 후에 대덕이라는 승계를 받고 있다. 덕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승계의

46) 「德謙墓誌銘」.

47) 『高麗史』 권4, 世家 4, 顯宗 7년(1016) 1월 임신(27) 및 顯宗 9년(1018) 12월 신해(23).

〈표 3〉 덕겸과 관오의 주요 이력 비교

덕겸	시기(왕대)	관오
수계(受戒)	1096(현종 2)	
❶ 승과 급제	1103(숙종 8)	
	1108(예종 3)	수계
	1113(예종 8)	성복선(成福選) 합격
장엄사 주지	1117(예종 12)	❶ 승과 급제, 대덕
	1122(인종 즉)	대사
	1123(인종 1)	중대사
❷ 삼중대사, 천홍사 주지	1126(인종 4)	
	1131(인종 9)	월악사 주지
❸ 수좌	1130년대	
❹ 법천사 주지	1137(인종 15)	❷ 삼중대사, 천홍사 주지
승통	1137~8(인종 15~6)	
	1145(인종 23)	❸ 수좌
현화사 주지	1146(의종 즉)	❹ 법천사 주지
	1154(의종 8)	수리사 주지

변동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주지직을 받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중대사, 삼중대사, 수좌, 승통의 순으로 승계가 올라가고, 거기에 맞추어 주지를 맡은 사원도 바뀌고 있다. 각기 다른 사원으로 주지직을 맡고 있지만, 처음 주지직을 맡은 때를 보면, 덕겸은 1117년에 장엄사 주지가 되고, 관오는 1131년에 월악사 주지가 되었다. 역시나 14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두 승려 사이의 이력에서 삼중대사로의 승진이나 두 번째, 세 번째 주지로의 이동 시기 등을 비교하면, 이 시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삼중대사를 맡은 나이를 보면, 덕겸은 44세(승랍 31세)이고, 관오는 42세(승랍 31세)였다. 30년 정도 승려 생활을 하면 삼중대사 수준의 승계를 받았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두 승려의 경력은 고려시대 승계와 승직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관오가 승과에 급제한 후 승계로 대덕(大德)을 받고 있는 것에서, 승과 급제를 하면 대덕부터 시작하는 승계 체계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중대사(重大師)에 올라간 이후에 주지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승계는 대덕으로부터 시작해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로 이어진다. 그 위로는 교종의 경우에는 수좌와 승통, 선종의 경우에는 선사와 대선사의 순으로 올라가서 모두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승계는 아니지만 그 위로 왕사, 국사가 고려 불교의 모든 승려를 대표하는 위치로 존재하고 있다. 이 승계는 광종대부터 승과라는 일종의 과거 시험과 연계되어 운영되었으며, 승계라는 지위를 국가가 부여하여 불교계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을 확보하였다.⁴⁸⁾

주지(住持)는 한 사원의 관리 책임을 지는 자리로, 그 운영의 권한과 사원을 대표한다는 명예를 지닌 자리였다. 주지직(住持職)은 교단의 의사를 모아 국가에서 임명하는 승직의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그 임명 과정 등은 승정(僧政)의 핵심이다. 그래서 불교 교단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국가와 불교의 관계를 살피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주지에 얼마나 높은 승계를 지닌 승려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일종의 사격(寺格)을 살필 수 있다. 곧 주지는 승과에 합격한 후 대덕과 같은 낮은 승계일 때에 지방의 사원을 주지하다가 수좌나 승통 혹은 선사나 대선사 정도의 고위 승계가 되면 개경의 사원에 주지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특정 종파는 개경의 사원을 근거로 하는 일종의 중심사원체계를 형성하여 승계에 따라 주지를 임명하게 된다. 법상종의 경우, 중대사, 삼중대사, 수좌, 승통의 순으로 승계가 바뀔 때 따라 주지를 지내는 사원도 달라지는 일종의 승진을 하게 된다. 이때 개경의 현화사가 현종 때의 법경, 정종 때 정현, 문종 때의 해린, 예종 때의 상지, 인종 때의 천상과 덕겸, 명종 때 각관 등이 승통으로 주지를 지낸 것이 확인되어,

48) 승계 및 그와 관련한 승정에 대한 연구는 다음이 크게 참고된다.

吉熙星, 「高麗時代の僧階制度에 대하여 - 특히 高麗圖經을 中心하여 -」 『奎章閣』 7, 서울대 규장각, 1983; 金映遂, 「五教兩宗에 대하여」 『震檀學報』 8, 1937; 김윤지, 『高麗 僧政 研究』,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박윤진, 『高麗時代 王師·國師 研究』, 경인문화사, 2006; 許興植, 『高麗科擧制度史研究』, 일조각, 1981;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일조각, 1986.

법상종의 중심 사찰로 위치하였다고 보인다.⁴⁹⁾

덕겸은 장엄사, 천흥사, 법천사, 현화사의 순으로 주지를 지냈다. 그는 1126년 여름에 삼중대사가 되면서 천흥사의 주지가 되었다(앞의 다-2) 참고). 그리고 1130년대 언젠가에 수좌가 되고, 1137년(인종 15)에 법천사 주지로 옮긴다. 몇 달 뒤에 승통으로 승계가 오르고, 1146년에 현화사의 주지가 된다. 그가 장엄사 주지를 제일 먼저 지냈지만 당시의 승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1126년에 삼중대사가 되었기에 그 전까지는 중대사였을 것이고 천흥사의 주지가 두 번째로 된 것이기에, 장엄사 주지가 될 당시는 승계가 중대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관오의 경우에 승계의 변화가 뚜렷이 드러난다. 그는 승과에 급제하자 대덕을 받았고, 이후 대사, 중대사의 순으로 오른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1131년에 월악사의 주지로 처음 주지직을 받았고, 1137년에 삼중대사로 오르면서 천흥사의 주지로 옮겼다. 이어 1145년에 수좌가 되고 다음해에 법천사 주지로 옮겼다. 1154년에 승계의 변화 없이 수리사 주지로 옮겼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승직이었다.

이런 두 승려의 승계나 주지 관련 이력은 중대사, 삼중대사, 승통, 수좌 등의 승계와 사격에 따른 주지직이 대응한다는 그간의 연구 성과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 나아가 12세기 중반에 천흥사는 삼중대사가, 법천사는 수좌가 주지로 취임하는 사격을 지닌 사찰임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지적할 것은, 두 승려가 각자 두 번째, 세 번째 주지의 장소로 천흥사, 법천사를 임명받았다는 공통점이다. 특히 이때 두 사람이 선임, 후임으로 서로 교차한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곧 1126년에 천흥사의 주지가 된 덕겸은 1137년에 법천사의 주지로 옮겼다. 관오는 월악사

49) 이상 승계와 주지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기문(『住持制度와 그 運用』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의 연구가 참고된다. 여기에 더해 한기문은 不動寺院이나 개인 願堂 등과 같이 승계와 무관하게 주지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주지로 있다가 1137년에 천흥사의 주지로 옮기게 되었다. 곧 천흥사의 주지가 덕겸에서 관오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법천사 주지로 있던 덕겸이 1146년에 현화사의 주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 관오도 천흥사에서 법천사 주지로 임명을 받았다. 이처럼 두 승려는 천흥사와 법천사의 주지직을 놓고 선임자와 후임자로 두 차례에 걸쳐 마주하게 된 것이다.⁵⁰⁾

둘 사이에 사승(師承)과 같은 직접적인 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두 승려의 기록에서 이러한 인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에, 당시 불교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두 번이나 승정의 계통에서 마주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주의를 끌만한 사건이다.⁵¹⁾

여기에 두 승려의 이력이 시작하였다고 할 승과와의 급제가 각각 1103년과 1117년으로 14년의 차이가 있다. 13년의 나이차가 있기에 그만큼의 시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천흥사 주지로 임명된 시점으로 가면, 덕겸이 1126년, 관오가 1137년으로 그 시차는 11년으로 줄어들며, 법천사 주지로 임명된 시점은 9년 차이로 더욱 좁혀지고 있다.⁵²⁾

추가로 한 가지의 상상을 덧붙이자면, 앞서 덕겸이 장래 왕사, 국사가

50) 주지직의 인수인계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해명되지 않아서, 실제로 두 승려가 물리적으로 마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51) 덕겸과 관오의 이력에서 보이는 대략 11, 12년 정도의 시차를 덕겸의 수좌, 승통 제수 시기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곧 관오가 1145년에 수좌로 임명받았으므로, 덕겸이 1134, 1135년 즈음에 수좌로 임명받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1137년에 법천사 주지로 옮겨가는 시기와의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거꾸로 관오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가 수리사 주지로 있다가 덕겸처럼 승통에 임명되고 1150년대 후반 즈음 현화사 주지로 옮겨가는 경로도 예상할 수 있다.

52) 시차가 단축되는 데에는 관오가 수주최씨라고 하는 당대의 명문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곧 관오의 형인 최함이 1140년(인종 18)에 禮部侍郎 翰林侍讀學士로 司馬試를 잘 주관한 바 있으며, 같은 해에 賀節日使로 금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借禮部尙書 知西京留守事를 거쳐 禮賓卿 寶文閣學士, 인종 말에는 左諫議大夫 司宰卿 修文殿學士까지 올랐다. 이런 형의 존재가 관오의 경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될 만한 인재로 인정받고 법상종에서 상당한 인망과 위상을 지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덕점의 이력을 유사하게 밝은 관오도 덕점의 뒤를 잇는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법상종에서 인정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V.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천홍사는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 또는 크게 증창된 사찰로, 현재 5층탑과 당간지주, 동종이 그 사역에 남아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 불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던 사원으로 이해되는데, 이 글은 그 주지를 지낸 것으로 확인되는 덕점과 관오 두 승려의 활동을 중심으로 승정의 일면을 살핀 것이다.

덕점은 대대로 법상종의 승려를 배출한 상당김씨 출신이다. 그는 승려가 된 이후에 승려시험을 합격하고, 장엄사, 천홍사, 법천사, 현화사의 네 사원의 관리자를 지냈다. 특히 그는 예종 때의 최고위 승려인 덕연에게서 뛰어난 인재로 꼽히기도 하였다. 관오는 현화사의 창건 공사를 감독한 최사위의 후손으로, 대대로 재상을 배출한 수주최씨 출신이다. 그는 숙부인 상지(尙之)에게 출가하였다. 두 승려의 출가 상황은 불교가 당시 지배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두 승려는 이자겸의 난과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자겸의 아들로 현화사의 승려인 의장은 이자겸의 난 당시에 덕점을 여러 차례 회유하였으며 난의 진압 후에 덕점이 국왕에게 발탁되었던 점에서, 덕점은 이자겸 세력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관오의 경우에는 이자겸 세력으로 부터의 탄압이나 이자겸의 난에서의 피해상은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종의 즉위 후에 국왕과의 가까운 관계를 맺은 바 있고 형인 최함이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후에 발탁되고 있어서 관오도 덕겸과 마찬가지로 이자겸 세력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두 승려는 승과의 응시, 승계의 수여, 주지직의 임명 등을 통해서 승정 체계의 일단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나 1137년 천흥사와 1146년 법천사의 주지를 두고 두 승려가 서로 선임자와 후임자로 연속해서 마주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高麗史』, 「덕검묘지명」, 「관오묘지명」, 「최함묘지명」, 「최계방묘지명」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DB (<https://db.history.go.kr/goryeo/main.do>)
- 金龍善 편, 『(第五版)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출판부, 2012.
- 채웅석, 『韓國金石文集成 35 : 高麗 19 金文 및 기타(解說編)』, 한국국학진흥원, 2012.
- (재)고운문화유산연구원, 『천안 천흥사지』, 2023.
- (재)충청문화유산연구원, 『天安 天興寺址 - 1차 발굴조사(추가 시굴조사) 보고서 -』, 천안시, 2021.
- Edward J. Shultz, 「한안인파의 등장과 그 역할」 『歷史學報』 99·100합, 역사학회, 1983..
- 吉熙星, 「高麗時代의 僧階制度에 對하여 - 特히 高麗圖經을 中心하여 -」 『奎章閣』 7, 서울대 규장각, 1983..
- 김갑동, 「나말려초 天安府의 성립과 그 동향」 『韓國史研究』 107, 한국사연구회, 2002.
- 김낙진, 「高麗 光宗의 개혁정치와 淸州 龍頭寺 鐵幢竿의 건립」 『사학연구』 121, 한국사학회, 2016.
- 김남윤, 「고려중기 불교와 法相宗」 『韓國史論』 28, 서울대 국사학과, 1992.
- 金塘澤, 「고려 文宗~仁宗朝 仁州李氏의 정치적 역할」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한국중세사학회, 2001.
- 김명진, 「고려 태조대 천안지역의 사상적 동향과 사찰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48, 한국중세사학회, 2017.
- 김명진, 「고려시대 천안지역의 왕실불교」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 金秉仁, 「韓安仁勢力과 李資謙勢力의 政治的 對立」 『高麗 睿宗代 政治勢力研究』, 경인문화사, 2003.
- 김수태, 「新羅末·高麗前期 淸州金氏와 法相宗」 『中原文化論叢』 1, 忠北大 中原

文化研究所, 1997.

김신해, 「고려 예종대 ‘恩賜’ 정책의 유형과 정치적 성격」 『韓國史學報』 58, 고려사학회, 2015.

金映遂, 「五教兩宗에 對하여」 『震檀學報』 8, 진단학회, 1937..

金潤坤, 「고려 귀족사회의 제모순」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4.

金潤坤, 「李資謙의 勢力基盤에 對하여」 『大丘史學』 10, 1976 ; 『한국 중세의 역사상』, 영남대출판부, 2001.

김윤지, 『高麗 僧政 研究』,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金周成, 「高麗初 淸州地方의 豪族」 『韓國史研究』 61·62, 한국사연구회, 1988.

남동신, 「고려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불교연구』 30, 한국불교연구원, 2009.

南仁國, 「고려 인종대 정치지배세력의 구성과 동향」 『歷史教育論集』 15, 역사교육학회, 1990 ; 『고려중기 정치세력 연구』, 신서원, 1999.

盧明鎬, 「李資謙一派와 韓安仁一派의 族黨勢力 - 高麗中期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 」 『韓國史論』 17, 서울대 국사학과, 1987.

문철영, 「고려시대 천안지역 사찰의 건립과 성격」 『충청학과 충청문화』 1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

朴龍雲, 「高麗時代 水州崔氏家門 分析」 『史叢』 26, 고려대 역사연구소, 1982 ; 『고려사회와 門閥貴族家門』, 경인문화사, 2003.

박수찬, 「고려시대 은례(恩例) 시행과 의미」 『역사와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2022.

朴永寬, 「高麗 前期의 刑律運用에 대한 研究 - 特히 流刑을 中心으로 - 」,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6.

박용진, 「고려시대 국가의 사원 구성과 성격 -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80,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22.

박윤진, 『高麗時代 王師國師 研究』, 경인문화사, 2006.

박윤진, 「高麗時代 승려의 血族間 師承과 그 意味」 『韓國史研究』 142, 한국사연구회, 2008.

박윤진, 「高麗前期 ‘賜紫沙門’의 의미와 역할」 『역사민속학』 4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辛虎雄, 「高麗時代의 赦免制度」 『關大論文集：人文科學·社會科學篇』 21, 관동대, 1993.

- 유성국, 「고려시대의 赦免制度」 『연세법학연구』 4, 연세법학회, 1997.
- 윤채운, 「고려전기 사면의례의 구성과 의미」 『韓國史研究』 197, 한국사연구회, 2022.
- 윤훈표, 「고려 전기 사면 실시의 특징과 행형 체계의 수립 방향」 『사학연구』 130, 한국사학회, 2018.
- 이순학, 『한국 가사(家史)의 유형 분석 및 구성법 연구』, 단국대 전통의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 李惠善, 「〈龍頭寺鐵幢記〉에 보이는 高麗初 淸州豪族」 『湖西文化研究』 14,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6.
- 任大熙, 「恩赦實施를 通하여 본 唐代政治」 『大丘史學』 40, 대구사학회, 1990.
- 조한필, 「성거산 천흥사와 고려 태조·현종」 『鄉土研究』 18, 천안향토사연구소, 2010.
- 佐川昭, 『古代王權と恩赦』, 雄山閣, 1998.
- 채민석, 「고려 예종대 道生僧統 王窺의 ‘모반’과 법상종 세력의 변동」 『전북사학』 65, 전북사학회, 2022.
- 崔炳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祐勳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 토니노 푸지오니, 『高麗時代 法相宗教團의 推移』,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 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 許興植, 『高麗科學制度史研究』, 일조각, 1981.
-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일조각, 1986.
- 황향주, 「이자점의 집권 배경과 인종초 이자점 권력의 공식화」 『中央史論』 62, 중앙사학연구소, 2024.

Abstract

Deokkyum and Gwano, their Activities and
Buddhist Administration in the early Goryeo dynasty

KIM, Bo-kwang^{*}

This study examines the careers of Deokgyeom and Gwano, two Goryeo-period monks who served as chief priests of Cheonheungsa Temple,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Seungjeong (Buddhist administration). Their familial backgrounds, political affiliations, and involvement in temple leadership highlight the close ties between Buddhism and the ruling elite. The analysis also sheds light on key elements of the Goryeo monastic system, including monastic examinations, succession practices, and administrative appointments.

Key words : Deokgyeom, Gwano, Beopsangjong, Seungjeong(Buddist administration), Juji, Cheonheung-sa, Beopcheon-sa, Kim's family of Cheongju, Choi's family of Suju

^{*} Associate Professor, Gachon Liberal Arts College, Gachon Univ.